

사회사업실천의 연구방법에 관한 논쟁 - 통합적 접근의 모색 -

문 성호*

- I. 서론
- II. 실증주의적 연구방법과 이에 대한 비판
- III. 의미주의적 연구방법과 이에 대한 비판
- IV. 연구방법의 통합적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제언
- V. 결론

I. 서론

사회사업에 있어서 실증주의적 연구방법과 의미주의적 연구방법¹⁾ 사이의 논쟁은 매우 오래되었고 본질적으로 초기 사회사업가들이 직면했던 사회사업실천이 예술인가 과학인가를 결정하는 딜레마의 연속선상에 있다. 사회사업 전문직이 발전하면서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사회사업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식의 축적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특히 1970년대초 사회사업 전문직은 실천의 효과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매우 당혹하였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1)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은 학자들에 따라 과학, 과학적으로 기반을 가진 실천, 혹은 과학적 연구라고도 한다. 의미주의적 연구방법은 자연주의적(naturalistic), 발견적(heuristic), 규범주의적(normative), 모방적(mimetic), 해석적(hermeneutic), 질적(qualitative) 접근이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주의적 평가방법을 채용하고 많은 대학에서 실천가가 개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이끌어내고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을 수정하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형태를 제공함으로써 치유책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의 적용은 자연과학과 정보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기인한다. 이와 더불어 통계학과 복잡한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사업을 비롯한 사회과학은 역사, 철학, 사회이론과 같은 추상적 개념에 의존하기보다 경험적 자료를 통해 더 정확하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미주의적 연구방법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졌다. 이에 따라 실증주의적 모델은 정당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고 전문직의 가치 및 임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1980년대초 Heineman Pieper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Heineman Pieper는 다른 사회과학자들이 포기했던 시대에 뒤떨어진 연구방법 모델을 사회사업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²⁾ 이러한 전통적 모델은 실천과 관련된 주요 개념이 경험적 그리고 수량적 측정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는 가정에 의존하여 지나치게 제한적인 패러다임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중요한 측면보다 방법론적 요구가 연구의 대상을 결정하여 결과적으로 중요한 질문과 가치 있는 자료가 연구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실증주의적 접근은 객관성, 예측, 인과관계, 결정주의, 실험, 수량화 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의미주의적 접근은 주관적 해석, 가치, 설명, 직관, 믿음, 연구과정, 통찰력, 상징 등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각 견해가 강조하는 전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현실(reality)이 주관적인지 객관적인지에 관한 오랜 철학적 갈등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 실증주의자는 사회적 세계에 관하여 현실은 외부에 그리고 개인의 사고에 독립적이라 반응한다. 의미주의자는 현실이 개인의 사고에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인식, 사상, 그리고 믿음에 의존한다고 본다.³⁾

논쟁의 핵심을 정리하면, 사회사업 전문직의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에 대한 확신은 실천을 위한 지식의 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실천의 범위를 독단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의미주의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실증주의자들은 사회사업 전문직은 과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경험적 방법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⁴⁾

우리 나라 사회복지(사업) 학계의 경우 사회복지정책과 같은 거시분야에서 의미주의적 연구방

2) Heineman, M., "The Obsolete Scientific Imperative in Social Work Research," *Social Service Review* 55, 1981, pp. 371-396.

3) Atherton, C. R., "Empiricists versus Social Constructionists: Time for a Cease-Fire,"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1993, p. 617.

4) Fraser, M., Taylor, M. J., Jackson, R., and O'Jack, J., "Social Work and Science: Many Ways of Knowing?," *Social Work Research & Abstracts* 27, 1991, p. 5.

법이 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고 직접적 서비스와 연계된 실천영역 등 미시분야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의 사용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회복지 관련 논문들을 보면 다양한 조사연구에 기반을 둔 체계적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거시분야의 논문들은 이론의 해석, 규범적 논의와 논평, 당위성에만 집착한 개인적 주장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실천영역과 관련된 연구들은 비록 실증주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체로 설문조사를 통한 사실(fact)의 기본적인 복잡하지 않은 형태의 통계적,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고 있다. 결국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외국의 경우 새롭고 발전된 형태의 연구방법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는 연구방법의 분화가 충분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고 변화를 위한 적극적 시도가 부재한 상태이다. 그러나 연구방법의 개발과 적용수준이 성숙해지면 연구방법과 관련된 인식론적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⁵⁾

비록 아직까지는 외국에서와 같은 실증주의와 의미주의간의 대립이 심각하지 않고 이미 연구방법의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 이에 기초한 구체적 연구물들을 발견하기 어렵고 연구방법과 관련된 논쟁에 대한 깊은 성찰과 분석없이 단순히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이슈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는데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논쟁에서의 중요한 이슈를 이해하고 건설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먼저 실증주의 관점과 의미주의 관점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들 관점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토대로 연구방법의 통합적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몇가지 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II. 실증주의적 연구방법과 이에 대한 비판

1. 실증주의 관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실증주의는 17세기초 영국에서 주요한 과학적 발견의 결과로 나타났고 이후 19세기에 들어와 자연과학에서 활용되는 경험적 방법이 사회과학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Auguste Comte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 20세기초 'Vienna 실증주의자'로 불리는 학자들에 의해 사회과학의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의 토대가 확립되었다.⁶⁾ 이와 같이 John Locke,

5) 오정수, "사회복지학의 통합적 접근: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의 이중구조분석과 통합적 발전 전망,"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996, p. 10.

6) Orcutt, B. A., *Science and Inquiry in Social Work Practice*,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0, pp. 15-20.

David Hume, Auguste Comte의 철학에서 유래한 실증주의 관점의 기본적인 전제는 외적 세계는 경험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고유의 현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측정 가능한 상황의 측면들과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연구로 의미가 있고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증주의 패러다임의 주요 가정을 살펴보면 첫째, 이 접근은 사회적 세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규칙 지배적이고 안정된 현실로 바라본다. 개인, 조직, 그리고 사회를 행동을 예측하는 사회적 현실의 결정주의적 구조의 반영으로 개념화한다. 현실은 인간의 생각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정확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경험적 측정도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측정한다. 이런 맥락에서 연구자는 자신을 일반적 상식의 설명과 가치부과적 언어가 아닌 중립적이고 과학적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현실세계의 일반적이고 정확한 진술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실증주의 연구자들은 가치가 연구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단지 어떤 조사가 필요한지 혹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선택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제한적인 역할로 본다.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연구과정과 결과가 연구자의 가치와 특수한 상황에 의해 왜곡되지 않는 객관적 연구를 통해 연구자의 가치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둔다. 이는 똑같은 연구 결과가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다른 연구자에 의해 발견될 것이고 그러므로 연구자는 그의 개인적 가치, 성향, 상황 등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셋째, 예측을 가능케 하는 법칙을 발전시키는 것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러한 법칙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과학적이고 객관적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론에 의해 설명된 관계를 정당화 혹은 확인하기 위해 설계된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실증주의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가정에 기반을 둔 연구는 보다 효과적인 사회사업실천과 교육을 지도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천에 관심이 있는 대부분의 사회사업가들은 다소 느슨하게 구조화된 모델에 의해 안내되었다고 지적하면서 Fischer는⁷⁾ 사회사업 전문직은 경험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실천전략들로부터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이동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지향적 실천을 위한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고 이러한 경험적 수단을 통해 전문직은 효과적인 실천을 성취할 수 있다. 그는 이를 사회사업에 대한 '과학적으로 기반을 가진 실천'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7) Fischer, J., "The Social Work Revolution," Social Work 26, 1981, pp. 200-205.

또한 그는 체계적으로 각 케이스의 진전을 모니터 및 평가하고 효과성의 증거가 있는 다양한 개입 기법을 사용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실천을 이행하는 '과학적 실천가'를 기대했다. 이러한 실천가는 개입을 위한 새롭고 더 효과적인 접근을 배우고 찾으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의 결론은 실천을 위한 지식의 축적에 사용되는 연구도구의 발전, 연구방법과 실천의 통합, 그리고 효과성의 증거가 있는 다양한 개입전략의 활용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Blythe와 Tripodi가⁸⁾ 주장하길 주의 깊은 측정은 개입의 이행과 클라이언트와 사회사업가의 목적 성취에 있어서의 진전을 모니터하는데 도움이 된다. 같은 맥락에서 Glisson은⁹⁾ 통계적 분석이 사회사업가에 의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통계방법의 적절한 사용과 해석에 있어서 실천가는 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처럼 많은 실증주의 학자들은 경험적 관찰이 유일하게 조사의 정당한 방법이라 믿는다. 이는 Hudson의¹⁰⁾ 주장에서 잘 표현되는데 그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측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측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치우칠 수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Schinke¹¹⁾ 역시 "바람직한 결과가 측정될 수 있는 단위로 표현될 수 없다면 개입적 목표는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주장하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문제가 측정될 수 없다면 그것은 개입의 적당한 표적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사회사업 전문직의 지식기반을 발전시키고 타당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의 주요 원칙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¹²⁾ 첫째, 모든 지식은 궁극적으로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둘째, 사회사업 실천이론의 타당성은 경험을 통해 확립된다. 셋째, 정의되지 않고, 조작화할 수 없고, 그리고 측정할 수 없는 구조들은 현실세계의 이해에 도움이 안된다. 넷째, 현실세계에 기초한 논리적 체계는 과학으로 사용된다. 다섯째, 과학의 기본 목적은 변인간의 관계를 조사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여섯째, 과학자의 근본 목표는 관찰할 수 있는 실체를 사용함으로써 체계적 관찰과 실험에 반하는 진술의 진실성을 테스트하고 현실세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논리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증주의 관점에서 보면 현실은 본질적 속성에 의해 구별되는 자연적 범주로 나누어지는 실체를 구성한다. 인간의 사고와 독립적으로 공식적이고 논리적 관계는 이러한 범주 중

8) Blythe, B. J. & Tripodi, T., *Measurement in Direct Practice*, CA: Sage, 1989, p. 23.

9) Glisson, C., "In Defense of Statistical Tests," *Social Service Review* 59, 1985, pp. 380-386.

10) Hudson, W. H., "First Axioms of Treatment," *Social Work* 23, 1978, p. 65.

11) Schinke, S. P., "Evaluating Social Work Practice: A Conceptual Model and Example," *Social Casework* 60, 1979, pp. 199-200.

12) Hudson, W. H., "Scientific Imperatives in Social Work Research and Practice," *Social Service Review* 56, 1982, pp. 256-258.

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인간은 논리적 관계와 연결되는 공식적 추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수학은 공식적 추론의 하나의 표현이고 범주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표현될 수 있는 언어이다.

공식적 추론의 규칙이 현실세계내의 관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인간이 논리적으로 추론할 때 그들은 인간존재의 상황적 주관성의 제한점을 극복한다. 자연적 언어와 인간의 일상생활에 관한 개념은 현실세계의 범주를 설명하는데 너무 애매하고 분명치 않다. 그러므로 지식은 정제된 언어의 창조를 요구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실제 사이의 가정적인 논리적 관계를 밝히고 그 다음에 제안된 관계가 유지되는지를 보기 위해 관찰을 통해 이러한 가정을 테스트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2. 실증주의 연구방법에 대한 비판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사업은 실증주의의 전통을 받아들였다. 수십년동안 이러한 방법과 원칙은 지속적으로 사회사업의 주된 관심인 사회적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적용되었다. 아마도 실증주의 연구방법의 주요 공헌은 전문지식을 형성하기 위한 규칙을 분명히 정의하고 실천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경험적 측정은 체계적으로 사회사업 개입을 모니터 및 평가하고 실천에 적절한 가정을 테스트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비경험적 연구로 성취하기 어려운 일치성, 신뢰성, 그리고 재연구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의 지지자 그리고 흔히 연구자 자신도 이러한 제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적절히 인식 못하고 있는 듯하다.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의 문제는 첫째, 사회사업실천과 제한적인 관련성이 있다. 실천의 핵심적 개념을 적절하게 이끌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실증주의 연구로 분석된 연구결과는 한계적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방법론은 실천가들이 전통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이슈보다는 내용적으로 중요치 않은 이슈에 초점을 두도록 제한한다. 결과적으로 사회사업 연구자는 흔히 그들이 측정할 수 있다고 보는 상대적으로 실천가에게 제한적 가치와 관련성을 가지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¹³⁾ 연구자들은 통계적으로 중요하지만 현실적 중요성

13) Allen-Meares, P. & Lane, B. A., "Social Work Practice: Integrat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ata Collection Techniques," *Social Work* 35, 1990, pp. 452-458.
Pieper, M. H., "The Future of Social Work Research," *Social Work Research & Abstracts* 21, 1985, pp. 3-11.
Wood, K. M., "Epistemological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Work Practice Knowledge," In L.

이 결여된 결과를 깊이 생각한다. 그러므로 경험적 발견의 복잡한 논의는 사실적으로 거의 실천적 의미와 관계가 적은 통계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강조할 수 있다. 따라서 조작화할 수 없고, 관찰할 수 없고, 그리고 측정할 수 없는 경험은 의미가 없다는 실증주의자의 주장은 사회사업 전문직이 다루어야 하는 인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바를 배제하는 것처럼 보인다.¹⁴⁾

또한 실천가들은 집합적 자료에 기반을 둔 연구결과를 그들의 개별적 케이스에 적용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들이 실천에서 고려해야 하는 인간상호간,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실증주의적 연구를 통해 적절하게 검토할 수 없다. 이는 인간의 행동은 너무나 예측하기 어렵고 다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방법론에 의해 이해될 수 없다는¹⁵⁾ 것에 기반을 둔다. 특히 인위적으로 통제된 실험에서 나온 많은 이론, 가정, 혹은 일반화는 전문적 실천에서 실천가가 직면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적용되기 어렵다.

사실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이 수량적인 자료를 강조하는 이유는 현재 책임성이 거의 배타적으로 비용 및 시간절약과 관련하여 정의되기 때문이다.¹⁶⁾ 결과적으로 클라이언트의 개별적 차이를 무시하고 유사한 문제를 지닌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미리 결정된 접근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실천가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둘째, 연구자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실패한다. 사회사업실천에서 통계집단과 조작의 사용은 실천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에게는 비윤리적이다. 일반적으로 실증주의적 접근은 만약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 조작과 통제의 어느 정도는 정당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방법 그 자체가 비윤리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연구자가 과학적 방법과 기술적 분석에 집중하는 것은 전문직의 개념적 기반을 유지하는 이타주의, 자유, 권리부여, 자기인식, 평등, 정의와 같은 지속적인 가치 이슈에 대한 실천가의 관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¹⁷⁾ Witkin과 Gottschalk에 의하면¹⁸⁾ 클라이언트가 연구대상으로 인식되어 연구의 목적은 행동의 기술적 통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의 주요 문제이다.

Videka-Sherman & W. J. Reid, eds., *Advances in Clinical Social Work Research*, MD: NASW, 1990, pp. 373-390.

14) Holland, T., "Debate with Authors: Comments on Scientific Imperatives in Social Work Research and Practice," *Social Service Review* 57, 1983, pp. 337-339.

15) Brennan, W. C., "The Practitioners as Theoretician," *Journal of Education for Social Work* 9, 1973, p. 7.

16) Heineman-Pieper, M., "The Heuristic Paradigm: A Unifying and Comprehensive Approach to Social Work Research," *Smith College Studies in Social Work* 60, 1990, pp. 26-27.

17) Reamer, F. G., *Ethical Dilemmas in Social Service*, 2d ed.,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0, pp. 23-27.

18) Witkin, S. L. & Gottschalk, S., "Alternative Criteria for Theory Evaluation," *Social Service Review* 62, 1988, p. 217.

셋째, 인간관계와 같은 복잡한 현상을 다룰 때 신뢰 및 희망과 같은 추상적 개념의 민감하고 타당한 조작적 정의와 경험적 측정도구를 만든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 또한 연구자들은 빈곤, 범죄, 정신장애와 같은 복잡한 사회문제의 원인을 탐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요소들을 이해하지만 무슨 변인이 적당한가 그리고 연구되어야 하는가에 관해 불일치를 보인다. 예를 들면, 방어기제 및 자존감과 같은 심리 내적 역동성에 초점을 두는 연구자도 있고 이와는 달리 가족의 역동성, 지역사회해체 그리고 공공정책과 같은 환경적 변인에 의존하는 연구자도 있다.

이와 같이 개념측정의 어려움과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제한된 이해의 결과, 실증주의적 접근은 흔히 단순한 연구모델 혹은 증거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비판받는다. 비록 우리는 복잡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일어나는 원인과 개입요소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이해하지만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은 인위적으로 부분적 영역에 초점을 두도록 강요할 수 있다.¹⁹⁾

넷째, 우리의 경험적 관찰은 틀리기 쉽고 연구자 자신의 기대, 편견, 그리고 가치는 클라이언트의 반응뿐만 아니라 이러한 반응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는 사회사업가는 흔히 결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독특한 상황에 직면한다. 이는 인간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고 정확성을 왜곡할 수 있다. 게다가 클라이언트 역시 면접 혹은 설문조사 질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대답을 제공할 수 있고 조사 혹은 평가에 대한 불안은 그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은 연구설계의 제한점 때문에 타협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은 항상 내적 그리고 외적 타당성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 내적 타당성과 관련하여 외생변수의 통제가 중요한데 이상적으로 전통적 실험설계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외생변수는 통제될 수 있지만 사회사업 연구자는 흔히 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한다. 그 이유는 윤리적인 문제로 사회사업 기관은 클라이언트를 실험 혹은 통제집단에 분류하거나 무작위로 두집단에 할당하기 쉽지 않다. 다른 이유는 시간적 제한으로 자료수집과 개입을 위해 연구자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은 기관 혹은 클라이언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외적 타당성은 연구의 결과를 다른 맥락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언급하는데 여기서 실천적 이유로 연구표본이 작거나 대표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는 또한 제한에 직면한다. 이러한 결과로 실증주의적 연구설계는 프로그램에서 일어나는 부분적 이해를 제공하는 심각한 결함을 갖게 된다.

19) Witkin, S. L., "Empirical Clinical Practice: A Critical Analysis," *Social Work* 36, 1991, pp. 158-163.

III. 의미주의적 연구방법과 이에 대한 비판

1. 의미주의 관점

사회사업실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간 사회생활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수용하기에 충분한 유연성 있는 과학의 모델과 연구방법이 필요하다.²⁰⁾ 이런 측면에서 의미주의적 연구방법은 특히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의 상황을 해석하고 자신의 자연적 환경에서 행동하는 방법 그리고 실천가가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한 방법으로써 유용하다.

인간행동의 모호성은 사회사업 연구자에게 특별한 문제를 야기한다. 인간의 행동은 단순하게 그 행위를 기술함으로써 이해될 수 없다. 그 대신 행위가 일어나는 사회적 맥락에 의해 의미는 추론된다. 우리가 관찰하는 현실세계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단순한 자연적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기대, 믿음, 태도, 확신, 그리고 감정 등과 같은 개념적 영역에 부과된 복잡한 사건의 집합이다. 인간의 인식에 의한 행동 정도는 그들이 경험하는 바로 그 사회현상을 구성한다. 이 점에서 의미주의자들이 발견하려고 하는 현실은 실증주의자들이 주장하듯 인간의 사고로부터 분리되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의미주의 패러다임의 주요 가정들을 좀더 살펴보면 첫째, 인간의 사회현실은 그들의 사고를 구성하는 활동에 의존한다. 현실은 다양한 견해로부터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존재한다. 비록 어느 정도의 이해는 가능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예측하고 통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통제된 실험은 흔히 인위적 혹은 비현실적 결과를 도출한다.

의미주의 연구방법에서 사용하는 측정도구는 측정을 위해 설계된 것에 독립적이지 않다. 이러한 측정도구는 연구자의 확대이고 현실을 구성하기 위한 그들의 시도에 있어서의 한 요소로써 작용한다. 이는 연구자는 중립적인 관찰자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인식과 해석은 가치 있는 정보의 근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과정에 있어서 연구자와 대상자는 상호작용하고 서로로부터 전이된 암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둘째, 연구과정에 있어서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가치는 어떠한 연구에 있어서도 본질적 구성요소이고 연구의 중심에 있다. 따라서 가치는 연구과정의 통합된 부분이라는 것이다. 현실세계를 보는 연구자의 견해와 지식은 필연적으로 그의 가치, 관심, 성향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현실세계를 연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제한된 과정이다. 즉

20) Witkin, S. L., "Towards a Scientific Social Work," *Journal of Social Service Review* 12, 1989, pp. 83-98.

우리의 가치와 관심은 현실을 연구하고 논의하는 방법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가치는 연구문제를 선택하는 초기단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론적 및 이론적 준거들, 그리고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의미주의적 연구의 주요 목적은 개별 클라이언트에 적합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요구 혹은 문제에 대한 해석적 이해에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위치에 실천가 자신을 두는 것이다. 실천가는 다른 사람의 반응에 감정이입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경험을 재창조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가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미주의 관점은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 현실을 사회적 세계로 본다. 이러한 현실은 행위자의 주관적 해석과 환경적 맥락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의미주의적 연구방법은 사회적 현상내의 의미있는 관계를 발견하고 이러한 관계가 사회적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둔다. 비록 사회적 현실은 감정이입, 직관, 지혜를 통해 이해되는 바 측정하기 어렵지만 연구자는 현실적이고 자연적인 상황에서 개인의 주관적 관점과 해석적 과정을 이해하고 조사하기 위한 구조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인간과 사회현상은 역사적 맥락과 인간의 문화적, 개념적, 그리고 개인적 편견의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연구되어야 하고 연구는 인위적 맥락에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런 맥락에서 일상적인 삶의 환경에서 클라이언트를 관찰하는 것을 포함하는 연구방법론은 인위적으로 통제된 실험보다 더 중요하다.

사회질서는 인간의 창조물이지 자연세계의 연장이 아니라 보는 의미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의미는 사건의 전후관계(context)로 해석된다. 인간행동과 행위가 일어나는 사회적 사건의 전후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치, 의미, 의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의미주의자는 개별적 의미의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고 개인들간의 의미를 비교하는 과정을 제공하는 연구방법론을 지지한다. 그들이 사용하는 연구방법은 엄격한 행동주의적 방법보다는 인본주의적 접근을 강조하는 실천이론과 연계된다.²¹⁾ 이러한 사회사업실천의 이론과 가정은 인간행동의 주관주의적 및 상대주의적 견해와 일치한다.

따라서 의미주의 관점들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려하는 연구자는 가능한 분명하게 그의 이론과 가정을 진술하고 표준화된 절차의 기계적인 적용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통해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 사회사업실천이 이러한 패러다임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 Heineman Pieper는²²⁾ 첫째, 현 과학의 철학은 결론적으로 논리적 실증주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패러다

21) Atherton, C. R., 앞의 글, 1993, p. 618.

22) Heineman Pieper, M., 앞의 글, 1990, pp. 25-29.

임은 과학적 노력에 불필요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둘째, 실증주의적 접근과 다르게 이 패러다임은 사회사업실천에서 원조의 초점인 복잡하고 내용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셋째, 이 패러다임의 원칙은 연구자와 실천가 사이 그리고 여러 분야의 연구자 사이의 협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용이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구자가 자신의 판단을 통한 자료분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한다.

사회사업의 지식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의미주의 연구방법은 몇가지 잠재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사회현실의 전이적, 반영적인 본질 그리고 도덕적, 정치적 차원을 인식함으로써 실천가는 그들의 이론을 현실과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자유, 권리부여, 사회정의와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다.²³⁾ 또한 클라이언트가 겪는 여러 가지 생활상의 문제에 대한 이해는 역사적, 문화적 맥락과 그 시대의 지배적 사회제도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검토된다. 게다가 이러한 이해가 어떻게 사회적 전후관계와 관련되는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결국 의미주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추론은 유기체의 본성에서 벗어나 성장한다. 모든 추론은 유전학적 유산, 생활하는 환경의 본성, 환경내에서 기능하는 방법, 그리고 사회적 기능의 본성 등과 같은 개별적 그리고 집합적 경험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축적된 모든 지식은 인간의 인지적 과정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한다. 지식은 현실세계에 있어서 대상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고 인간의 직관, 가치, 개념적 도구와 같은 사회적 현실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지식은 기본적 인간환경에 대한 인식의 속성에 기초한 이해의 패턴을 통해 인식적 상호작용의 해석을 구성한다.

2. 의미주의 연구방법에 대한 비판

실증주의 관점에서 보면 의미주의자들은 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규명할 수 있는 적합한 측정도구의 사용에 반대한다. 그렇다고 이들이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본다. 즉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의 대안적 견해로 의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와 연구를 평가하기 위해 제안한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 의미주의자의 견해는 이러한 질문에 상당히 부족한 대답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미주의자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연구방법을 포기하고 있고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사업의 지식기반을 발전시키거나 타당성 있게 하는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미주의자는 잘못된 논리와 정보를 가지고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23) Witkin, S. L., 앞의 글, 1989, pp. 90-91.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의 원칙을 이해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실증주의자들의 지적이다. Hudson에 의하면²⁴⁾ 어느 연구자도 현실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확실하고 변화할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하거나 어떤 플라톤적 진실의 추구를 옹호하지 않는다. 더욱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현실세계에 기초하지 않은 논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결국 그의 주장은 현실세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경험을 통해 획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비경험적 방법을 통해 현실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의미주의 관점의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실증주의자들은 그들의 연구방법이 중요한 질문과 가치 있는 자료를 연구하지 않고 연구질문의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다라는 의미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그들에 의하면 의미주의자들은 어떻게 연구자들이 중요한 질문과 가치있는 자료의 연구를 제한하는지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제한되는 질문과 가치 있는 자료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무슨 기준이 그들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지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²⁵⁾

둘째,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에서 의미주의자들은 무슨 비경험적 메커니즘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지 설명을 못하고 있다. 사회사업 전문직의 지식기반을 넓히고 타당성 있게 하는 기반으로서의 추가적 경험의 사용을 주장하지 않는다.

셋째, 의미주의자는 특별한 연구방법이 인식론적으로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므로 방법론의 위계서열이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증주의적 접근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실천적 연구는 과학적 수용성에 따라 방법론의 위계서열이 있다는 것이다. 예비적 연구에 있어서 조작적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Geismar와 Wood의²⁶⁾ 주장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연구의 이런 원칙은 요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원조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관해 유용성을 입증하고 일반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지식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사업 전문직에 귀중한 기준을 제공한다.²⁷⁾

넷째, 의미주의자는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의 원칙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실천에 적용되는 적합한 지식이 의미주의적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활발하게 생산되지 않는 듯하다. 사실 의미주의적 연구방법을 지지하는 학자들의 논문들을 보면 이러한 연구방법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사회사업적 개입의 효과성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연구물의 예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²⁸⁾ 따라서 의미주의자들은 사회사업실천의 연구에 적당한

24) Hudson, W. H., 앞의 글, 1982, p. 248.

25) Hudson, W. H., 위의 글, 1982, p. 249.

26) Geismar, L. L. & Wood, K. M., "Evaluating Practice: Science or Faith?," *Social Casework* 63, 1982, pp. 271-272.

27) Thyer, B. A., "First Principles of Practice Research,"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19, 1989, p. 313.

연구기법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단지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을 비난하는 차원이 아니라 건설적인 이론 혹은 실천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으로 수용될 수 있다.

다섯째, 의미주의자들은 철학과 과학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²⁹⁾ 주로 그들의 주장은 철학적 수준에 머물고 있고 철학자들은 현실세계의 중요한 측면들을 발견하고 분석하는데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논쟁에 관여하고 경험과 관련하여 논쟁을 해결하려 할 때 그는 과학에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철학자들은 논쟁에 기초한 결론을 생산하고 과학자는 증거, 관찰, 그리고 경험에 기초한 발견을 생산한다.

결론적으로 의미주의자에 의해 제안된 대안적 인식론과 연구방법은 부적당하고 애매하고 사회사업 전문직이 효과적인 처우방법을 결정하는데 믿을만한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흔히 사회사업 전문직은 어떤 의미있는 경험적 증거가 부족한 실천의 방법들을 채택하고 이를 교육한다. 그러므로 클라이언트는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그리고 그들에게 해로울 수 있는 사회사업 서비스를 제공받기 쉽다. 따라서 과학적 연구의 기준에 의해 수행되는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실증주의자들의 논리이다.

IV. 연구방법의 통합적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제언

의미주의자는 관찰에 있어서 편견의 문제를 실증주의 모델을 포기함으로써 해결하려 한다. 한편 실증주의자는 비록 관찰은 편견이 있지만 사람들은 현저하게 유사한 관찰을 하기 때문에 아직 연구를 위한 건전한 기반이라 본다. 연구절차를 표준화하고 조작화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는 구성을 피함으로써 편견의 최소화를 추구한다. 1980년대초 Heineman Pieper가 연구방법에 관한 논쟁을 제기한 이후 이러한 논쟁에 참여한 많은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볼 때 하나 분명한 결론은 이들이 실증주의 관점의 극단적 견해를 방어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 물론 어떤 학자는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의 잠재적 기여에 대해 다른 학자보다 더 동정적이지만 모든 사회사업의 연구가 제한적인 실증주의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를 발견하기 어렵다. 비록 정확하게 어떤 방법과 기법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실증주의 및 의미주의 연구의 가치를 인정한다. 문제는 어떻게 각각의 견해를 이해하고 보다 발전적 실천지식을 이끌어내기 위해 통합적 접근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이다.

갈등적 논쟁에서 이동하여 보다 건설적인 통합의 논의가 필요한데 통합은 여러 가지 방향에

28) Thyer, B. A., 위의 글, 1989, pp. 312.

29) Hudson, W. H., 앞의 글, 1982, p. 251.

서 접근될 수 있다. 먼저 효과적인 통합은 변증법적 과정의 결과로 일어난다고 보는 Marx와 Hegel에 기원을 둔 비판적 패러다임(critical paradigm)이 있다. 원칙적으로 변증법적 과정은 정(thesis)과 반(antithesis) 사이의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합'을 생산한다. 서로 다른 주장을 펴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새로운 통합을 이끌어내고 이러한 새로운 통합은 그것 자체의 즉각적인 반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과정은 계속된다. 변증법적 과정의 보편성은 모든 것은 반대 혹은 반박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갈등은 이 접근의 핵심적 요소이고 이는 지식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³⁰⁾ 아직 완전한 통합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논쟁이 시작되었던 당시보다 연구방법의 통합에 대해 보다 발전적 합의가 존재한다. 이러한 패러다임과 관계가 있는 대표적인 학자로 Karger를 들 수 있다. 그는 사회사업 연구방법론에 관한 논쟁은 내용적으로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쟁의 정치적 그리고 구조적 본질을 평가했다. 그에 의하면 논쟁의 중심은 전문직의 방향, 지도력, 그리고 미래의 정치적 통제를 위한 연구자와 실천가 사이의 가치와 믿음 그리고 지도력과 관련하여 지위가 생기는 사람들 사이의 투쟁이라 보고 있다.³¹⁾

다른 통합의 방향은 창조적 패러다임(creative paradigm)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통합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두개의 부분적인 견해, 즉 실증주의와 의미주의의 요소들을 함께 가져온다. 두 가지 접근은 각각 그 자체가 완전한 견해가 아니다. 실증주의 혹은 의미주의가 완전한 견해라고 생각할 때 많은 문헌의 논쟁에서 보듯 갈등이 발생한다. 우리가 사회현상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그리고 사회사업실천이 단정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실증주의와 의미주의 접근은 분리될 수 없다. 창조적 연구방법의 초점은 이런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 전체를 밝히려는 것이다. 이를 성취하기 위한 근본적인 과정이 통합이다.³²⁾ 창조적 접근이 적용될 때 연구방법의 활용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연구과정의 단정적 요소는 부인된다.

세 번째 방향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조사집단(new paradigm research group)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접근은 어느 하나의 연구방법 준거틀이 다른 것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³³⁾ 각각의 연구방법은 서로 다른 이해를 제공한다. 즉 모든 관점과 접근은 필요하고 상호의존적이라 주장하는 지속적인 상대주의적 철학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이 접근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실증주의와 의미주의의 관점은 '다양한 방법론적인 인식론적 접근'내에서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0) Peile, C., "Research Paradigms in Social Work: From Stalemate to Creative Synthesis," Social Service Review 62, 1988, p. 12.

31) Karger, H. J., 앞의 글, 1983, p. 202.

32) Peile, C., 앞의 글, 1988, p. 13.

33) Peile, C., 위의 글, 1988, p. 12.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통합적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창조적 패러다임'에 초점을 두고 몇가지 제언하면 첫째, 통합의 필연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사회사업실천에서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되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비록 연구방법의 가장 발전적 모델에 관하여 다소 다른 견해들이 있지만 분명히 논쟁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연구방법론적 다원주의를 선호한다. 즉 연역적 및 귀납적 증거를, 양적 및 질적 자료수집 기법, 객관성 및 주관성, 그리고 설명 및 예측 등 실증주의적 연구방법과 의미주의적 연구방법 모두는 유용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사업의 실천상황에 적합한 인식론적 관점과 방법의 통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진정한 통합은 실증주의적 및 의미주의적 연구방법에서 사용되는 기법을 단순히 함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사업 실천과정의 정확한 단계에서 적절한 기법을 사용해야 하는 더욱 복잡한 접근이다. 각각의 연구방법을 통해 획득된 자료는 독특하고 다른 목적에 기여하고 그리고 서로 사회사업의 실천과정을 강화하기 위해 작용한다.³⁴⁾ 통합이 필요한 주요 이유는 인간이 경험하는 현실세계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이해는 전통적 연구방법론으로는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점이다. 더욱이 최근에 인간관련 학문은 지식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를 발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둘째, 사회사업실천가들은 다양한 실천상황에서 요구되는 가장 명료하고 분명한 정보를 얻기 위해 체계적으로 다양한 연구방법의 관점과 기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에게는 사회사업 실천과정을 통하여 각각의 패러다임으로부터 가장 필요한 방법과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사실 사회사업은 다양한 렌즈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쳐우하고 그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가장 적합한 개념적 렌즈를 찾기 위해 필요한 임상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실천가가 필요하다.

특히 여러 패러다임으로부터 어떠한 자료수집 기법을 사용할 것인가는 기계적으로 구조화된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가의 임상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임상적 판단은 어떠한 정보가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가장 필요한가와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행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반응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이는 실천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형성된 질문에 임상적 판단을 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패러다임으로부터 방법과 기법을 결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34) Allen-Meares, P. & Lane, B. A., 앞의 글, 1990, p. 455.

셋째, 사회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방법의 통합적 패러다임의 구축은 실증주의와 의미주의 관점의 부분성 혹은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통합은 두 가지 접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단순하게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Peile이³⁵⁾ 지적하듯 부분적 견해 사이의 갈등과 차이는 진실을 인정하는 더 넓은 견해를 수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실증주의자나 의미주의자나 자신들의 견해만 정당화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용하는 연구방법이 경험적으로 유용성을 보여주고 진실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두 가지 관점 모두가 진실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사업 전문적인 실천의 기반을 타당성 있는 지식에 두고 클라이언트의 특성 그리고 처우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관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험적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 상황의 전후관계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경험하는 삶의 현실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주관적 해석, 직관, 가치 및 지혜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인정해야 한다.

넷째,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연구방법론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최소한 비체계적이고 비이론적인 인식론적 절충주의로 보아서는 안된다. 부분적이거나 불완전한 관점에서 탈피하여 전체적인 입장에서 연구방법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과학에 대한 인지적 접근에 기반을 둔다. 여기에서 과학은 인간 그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현실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구조적 체계를 이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지식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단일한 관점이 인지적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함의를 갖는다. 그러므로 다양한 관점들이 유용한 지식을 생산할 수 있고 가치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다양한 사회사업과 관련되는 중요한 이슈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변화를 위한 개방성이 요구된다. 실증주의적 그리고 의미주의적 연구방법 어느 한 쪽의 주장이 틀렸거나 서로 적대적 위치에 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각 관점은 단지 현실세계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 볼뿐이다. 통합적 접근을 위해 우선적으로 실천가와 학자들이 공유해야 하는 개방성은 경험적 자료의 합리적이고 반영적인 검토를 통해 지식의 생산 및 이의 비판적 분석을 위해 많은 사람에게 그들의 결과물을 제시하려는 확신이다. 결국 방법론적 접근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의 경험과 행동의 이해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보다 좋은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사회사업은 인간의 보다 넓은 이해를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방법론적 논리에 의존하기보다 개방성을 통해 다양한 접근의 사용을 격려해야 한다.

35) Peile, C., 앞의 글, 1988, p. 11.

V. 결 론

지금까지 이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증주의적 연구방법과 의미주의적 연구방법은 다른 연구 절차와 인식론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실증주의 관점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의미주의 관점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과 다르다. 전자는 사회사업실천을 안내하는 것으로써 경험적이고 과학적 접근을 지지한다. 후자는 비록 과학은 중요하지만 연구방법의 질적 모델과 실천의 인본주의적 모델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1980년대초 사회사업 연구방법에 있어서 실증주의의 역할에 관한 격렬한 논쟁이 제기된 이후로 많은 깊이 있는 대안들이 제한적인 실증주의 연구방법에 반응하여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실증주의에 비판적이지만 이런 연구방법의 요소 모두를 버려야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제안된 대부분의 대안들은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의 유용성 있는 특성을 의미주의적 연구방법의 특성과 통합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한다.

즉 두 가지 극단적 연구방법을 지지하는 논쟁에서 벗어나 통합적 패러다임에 관한 논의의 위해 본질적으로 실증주의와 의미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또한 한 패러다임이 궁극적으로 다른 것보다 더 우위에 있다거나 정확하다는 가정을 버려야 한다. 이보다 사회사업 실천과정에서 유능한 실천가는 각각의 가장 가치있는 요소와 특성의 효과적 통합에 주의를 두어야 한다. 비록 연구방법에 관한 논쟁 그 자체는 사회사업에 있어서 지식이 어떻게 발전되는지의 한 예이지만 어떤 지식의 형태도 그것의 인식론적 그리고 존재론적 유산 때문에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논쟁의 측면들을 해소하려 한 Hartman의³⁶⁾ 주장처럼 많은 진실과 많은 지식의 방법이 있고 사회사업 전문직의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연구방법도 존재할 공간이 있다. 우리 사회사업 전문직이 관여하는 영역은 넓고 깊다. 사회사업은 인간간의 관계,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는다. 또한 사회정의, 사회정책, 사회적 속성,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행에 관심이 있다. 게다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의 삶과 경험 그리고 이의 의미를 해석한다. 지식의 한 방법이 사회사업의 이런 방대하고 다양한 범위를 연구하기는 불가능하다.

미약하나마 연구방법의 갈등과 이의 해결을 모색하고자 한 이 글을 통해 우리 나라 사회복지(사업) 학계에 제시하려는 함의는 우선 연구방법의 통합화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 이후 우리 학계의 주요 쟁점으로 제기된 학문 접근방법, 교육, 실천현장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논쟁과 함

36) Hartman, A., "Editorial: Many Ways of Knowing," Social Work 35, 1990, pp. 3-4.

게 사회복지학의 내적 일치성 증진, 정체성 형성 및 미래 학문발전의 모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학문 접근방법간의 갈등이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적 다원주의에 기초한 연구방법의 통합적 접근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연구방법의 통합화에 관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교육과 실천에서도 함의를 갖는다. 예를 들면 교육과 관련하여 특히 대학원 이상의 교육과정에 실증주의 및 의미주의적 연구방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과목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실천영역에서는 분석과 실천이 함께 강조되는 실천지향적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게다가 연구방법의 이중적이고 절대적 대립구조에서 탈피하여 통합을 추구하려는 생각을 지니고 실질적으로 통합적 접근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지식의 산출과 전문직의 사회적 변화를 위한 임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인간상호간의 문제와 사회현상의 복잡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사회현실을 완전하게 설명하고 더 전체적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통합이 추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논쟁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물론 연구방법의 통합적 접근은 시간, 재정, 훈련, 그리고 분명한 이론적 편향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자 혹은 실천가에 의해 제한될지 모른다. 이와 더불어 통합적 접근이 실증주의와 의미주의적 연구방법간의 대립구조에 내재하고 있는 본질적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나라의 학계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대안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이러한 논의를 통해 도출되기를 바란다. 특히 이 글을 토대로 통합적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어떻게 연구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연구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